

일하고 싶은 첨단 공간 가꾸기

글_고현정_성진씨앤씨 홍보팀장

구로공단(현 디지털산업단지)에서 제조업체 하면 떠오르는 것은 기계장비, 먼지, 소음으로 가득한 열악한 근무 환경이다. 하지만 구로공단에서 디지털산업단지로 변모되고 이곳에 속속 벤처회사들이 입주하면서 이 같은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

건물 외관뿐 아니라 인테리어 및 복지시설 등 대기업 못지 않게 꾸며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 성진씨앤씨의 '집안 가꾸기'를 소개한다.



▲ 최신형 시설을 갖춘 대회의실 전경

DVR 전문업체 성진씨앤씨는 지난해 말 서울 서초동에서 가산동 디지털산업단지의 아파트형 공장으로 이전을 앞두고 많은 고민을 했다. '공단'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화려하고 도심의 문화를 즐기는 젊은 직원들의 사기 저하를 불러오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직원의견 반영한 공간배치

이에 경영진에서 무엇보다도 신경을 쓴 것이 바로 내부시설이었다. 각 팀별 인테리어 의사결정자를 선정하고 공간배치 및 컬러에 이르기까지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며나갔다.

가산동 SKT 인테크타워의 B동 3층에 자리 잡은 1380평 규모의 공간을 은회색과 파란색이 조화된 인테리어에 유리 재질로 깔끔하면



▲ 홈시어터 시스템을 통해 직원들이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Hope-Day Cafe

서 쾌적한 사무실 분위기를 연출했다. 연구, 사무, 생산 공간으로 크게 분리해 업무에 따른 파트별 독립성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회의실, 휴게카페 등을 중앙에 적절히 배치해 파트별 화합을 유도했다.

특히 휴식 공간에는 DVD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홈시어터 시스템과 게임기를 마련해 놓고 젊은 직원들의 기호에 맞는 휴식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영화감상, 생일파티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다.

업무특성 고려한 근무환경 조성

정보기술(IT)업체답게 초고속 인터넷뿐 아니라 무선랜을 설치해 사무실 어디에서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오랜 시간 앉아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전 직원에게 기능성 의자를 지급했다.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쾌적한 사무공간은 곧 생산성과 직결된다는 것이 회사 경영진의 생각이다.

이에 회사 벽면에 붙이는 절전 스티커 하나에도 디자인을 고려했다. 성진씨앤씨를 처음 방문한 분들은 모두 한 마디씩 한다. "구로동에 있는 공장이라니 했는데 인테리어 사무실 같네요" 라고... 사무실 인테리어 하나하나에도 성진씨앤씨의 젊은 기업문화와 독특한 개성이 묻어 있다. **KoVA**